

제 목	국 문	한국여성에서의 식이습관과 유방암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 문	Diet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 A Case-Control Study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신명희 ¹ , 양정현 ¹ , 최국진 ² , 안윤옥 ² ¹ 삼성서울병원, ²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 문	Myung-Hee Shin ¹ , Jung-Hyeon Yang ¹ , Kuk-Jin Choi ² , Yoon-Ok Ahn ² 1 Samsung Medical Center, 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학	발 표 자	일반회원(신 명 희)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한국 여성에서의 식이습관이 유방암 발생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식이습관, 특히 고지방식이 유방암 발생을 유발하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서구 국가들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함께 유방암의 입원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자궁경부암, 위암에 이은 3번째 빈발암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 암 질환의 증가가 식이습관, 특히 고지방식사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이 질환의 병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유방암 증가 억제에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형태로 수행되었다. 환자군은 1993년 6월부터 서울대학병원과 국립의료원 일반외과에서 새로이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환자로 정하였으며, 대조군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의 피부양자중 1993년도 정기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며 무작위로 추출된 수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로 정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서울 및 서울 근교 지역 거주자이며 연령이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 숙련된 면접자들을 통하여 과거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식습관 등을 직접면접으로 조사하였다. 식습관은 식이섭취빈도표를 제작하여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먹은 빈도와 한 번 먹을 때의 양을 동시에 조사하였다. 빈도표에 포함된 음식은 우리 나라 특유의 다빈도섭취 음식들로 구성되었다.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 및 식품 섭취량을 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표 제 4판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각 음식의 prototype recipe 및 일반적인 섭취빈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영양소 및 식품섭취량 산출을 위한 특수 계산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p>				

3. 연구결과

최종 연구대상자는 환자군 210명, 대조군 250명이었다. 키는 유방암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나, 몸무게 및 체중지수(BMI, Kg/m²)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그밖에 양성유방질환력, 유방암 가족력, 빠른 초경, 등이 유방암 위험도를 유의하게 높였고, 1주일에 3회 이상의 운동은 유의한 보호효과를 가졌다.

식품별로 분석한 결과 우유(Odds Ratio(OR) 0.18, 95% Confidence Interval(CI) 0.04-0.86), 녹색야채(OR 0.50, 95% CI 0.27-0.91), 마늘(OR 0.58, 95% CI 0.32-1.07)이 유의한 보호효과를 보였고, 쇠고기(OR 1.72, 95% CI 0.94-3.12), 돼지고기(OR 1.23, 95% CI 0.69-2.20), 닭고기(OR 0.79, 95% CI 0.43-1.45), 생선(OR 1.49, 95% CI 0.84-2.65), 두부(OR 1.09, 95% CI 0.60-1.97)등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총 지방의 영향은 3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선 총 지방 섭취량을 있는 그대로 열량보정한 방법(방법 1), 총 지방 섭취량을 총 열량중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지방밀도로 바꾸어 열량보정한 방법(방법 2), 열량 보정 총 지방섭취량을 구하여 열량을 다시 보정한 Willette 방법(방법 3) 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방법 1에서는 최다 섭취군이 기준군에 비해 OR 이 0.84(95% CI 0.38-1.84), 방법 2에서는 OR 이 0.50(95% CI 0.27-0.94), 방법 3에서는 OR 이 0.65(95% CI 0.36-1.17) 으로 계산되어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위험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단백질과 섬유질의 섭취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함께 고지방식이 섭취도 늘어나 이 영양소의 역할이 우리나라 유방암 증가에 많이 관여하였으리라고 가설을 세웠으나, 결과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 겨로가 아직도 우리 나라 여성의 지방섭취량은 서구에 비해 극미량에 속했고(중간 섭취량 38g/day, 17.9% of total calory intake), 이렇게 지방 섭취량이 너무 적은 군에서는 오히려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타 연구발표도 최근 있어 이분야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된다.